

[**종합·해설**]

정부기관 '운하 타당성 조사' 논란

국토연·수공·건기연 작성... 100원 투자시 16원 수익 李 "정치공작용 보고서" 朴 "차체에 공약 철회해야"

정부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한반도 대운하의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4일 "3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며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타당성 조사를 벌여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엔 다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수자원 관련 현안 보고할 때 제출한 자료에도 이 중간 검토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정부산하의 수익성은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이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정부산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원이 들어 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정부산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천300만㎡, 수입은 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톤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이명박 죽이기용 정치공작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정부기관이 개입해 검증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비칠 수 없다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차체에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직접 주문생산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만든 정치공작용 기획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 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 측이 정권의 불순한 보고서를 입수, 야군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있다"면서 "여권의 음해성 공작에 야군이 휘둘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

박 전 대표 측의 유승민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기관이 검증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성이 없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립지대의 전문가들이 대운하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정홍보처 폐지하라"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수호 및 국정홍보처 폐지 촉구를 위한 의원 총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실 통폐합' 홍보홍보처, 리플릿 배포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후속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4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

이 책자는 모두 8쪽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식 소개와 해외의 기자실 운영실태 및 사례 그리고 관련 도표 등이 담겨 있다.

홍보처 관계자는 "2만 부는 무료 신문을 통해 서울시에 현장 배포했으며, 나머지 8만여 부는 전국의 읍면동 등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라며 "인쇄비는 900여 만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총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홍보처는 또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인정과 대응결과 등을 매일 공개키로 한 방침에 따라 5일 오후부터 포털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靑 "국민에 엄청난 악영향... 운하 조사는 당연"

청와대는 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산하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중간보고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전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고 자칫 국토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면

서, 대통령도 이것이 타당한지라 관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기관들이 과거 자신들이 연구했던 것을 다시 찾아내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 의무"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는 윤영은 지난 1996~1998년 이뤄진 게 이미 있는데,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현재 여건에 맞도록 내용을 재분석하자는 실무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초 구성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종보고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그 중 일부 요약한 중간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공유됐으며, 그 내용중 일부가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통령 특강 연설문에 참고자료로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곽성문-정두언, '특정인사 총선출마 불가' 공방

곽 "살생부 들고 칼 휘두르나" 정 "말꼬리 잡기 본질 호도말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4일 정 의원의 특정 인사 '총선출마 불가' 발언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이 전날 곽 의원 등을 지칭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정도로 비방이 심하다"고 말한 데 대해 곽 의원은 4일 "공천권 협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정 의원이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두 사람이 격한 감정싸움을 벌인 것.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의 '총

선출마 불가' 운운 발언은 공천 살생부의 소문을 확산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8월 경선 승리, 9월 임시전대 당권장악, 내년 공천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당합위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출세 무기 협박용' 시나리오의 일단을 내비친 게 아니냐. 살생부를 들고 망나니 칼을 휘두르느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천권 협박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내 발언의 취지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공천탈락이 아니라 스스로 사법당국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주시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진보진영 시민사회세력 11일 '신당창당 추진' 선언

진보진영 시민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 진영은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신당의 외곽 지원부대까지 형성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포괄,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행동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통합변영미래구상의 멤버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세력은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정치력을 위한 창당추진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신당에는 통합변영미래구상 멤버인 양길승 녹색병원장, 연출가 임택씨,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상모 민족평화문화연구원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선언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당분간 창당멤버로 참여하기보다는 정당 외곽의 지원그룹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親盧 진영도 세규합 본격화

참정포럼 지부 잇단 발족·노사모 총회에 노대통령 초청

범여권의 통합작업과 맞물려 친노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정포럼) 연설에 대해 친노진영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노 진영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친노진영의 세결집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참정포럼이 대표적이다. 참정포럼은 지난달 26일 대전·충남 포럼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이달에 도 13일 광주·전남, 15일 강원, 25일 충북, 27일 전북지부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포럼은 스스로 표방해 온 '정책세력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오는 16~17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총회를 앞두고 전·현직 대표일꾼으로 구성된 총회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노사모는 특히 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 노 대통령을 초청키로 방침을 정하고 급명간 참석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노 사모측으로부터 초청 문제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 판단이지만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친노 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회찬 전 총리의 경우 최근 별도의 사무실이 여의도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총리 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는 대선 경선 출전제비를 갖춘 가운데 공식 선언 시기가 남겨놓은 상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 이후 집필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지모임인 '참여시민광장'이 오는 9일 출범식을 갖는 등 외곽그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

국제외식산업(주)

SINCE 1985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 .(062)262-2278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퍼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펌퍼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2006년 에너지 단가기준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공가습기 공기청정기**

▶▶ **에어컨 특별할인 판매 실시**

벽걸이 액티브 냉난방에어컨 (10, 13평형)
벽걸이형 에어컨 (6, 8, 10평형)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조달절 우수 조달물품 지정

- ▶ 업계 최초 펌퍼 특별 리스크 기법계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래밍입니다
-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 ▶ 삼성,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펌퍼의 일꾼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 080-701-7117